

2023-11-27 (2023-43호)

11월 27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금리·달러 방향성 힌트와 수급 변동성

서울, 11월2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경제지표 결과와 월말 수급 따라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15원이다.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 확인 이후 떨어진 금리와 달러 약세에 달러/원은 하방압력을 키우는 듯했지만, 환율은 예상보다 쉽게 1,300원대를 쉽게 회복했다.

금리와 달러의 동반 하향 안정세 속 위험선호 회복에 따른 증시 강세까지 가세하며 달러/원은 하락폭을 넓혔지만, 1,280원대 중반 저항을 넘어서진 못했다. 이후 환율은 빠른 되돌림 양상을 보이다 1,300원선에서 지지력을 형성했다.

지난주 방향성을 강화하지 못한 환율은 1,30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주는 월말 수급 상황 따라 위·아래 저항을 수시로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말 역내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매월말마다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는 외인 주식 관련 수급 변수가 관건이다.

다만 금리와 달러 하락을 굳힐 추가 경제지표를 대기하는 현 시점에서 이번 주엔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있어, 연말까지 시장 방향성을 견인할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주목하는 물가지표인 10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에 이어 연준 베이지북,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중국 11월 공식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등이 발표된다.

한편 주요 연준 인사들을 비롯해 주 후반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국내 핵심 일정과 챙겨봐야 할 지표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11월 수출입 동향(잠정) 등이 대기하고 있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27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 (15:30)

11월28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 (06:00)

11월29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09:30)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통계청: 2023년 9월 인구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4:00)
- ⊙ 기획재정부: OECD 11월 세계경제전망

11월30일(목)

- ⊙ 통계청: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기획재정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11월) (13:30)

12월1일(금)

- ⊙ 산업통상자원부: 11월 수출입동향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2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10월		-9.0%
11월27일	22: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10월		1.487M
11월28일	00:00	미국	신축주택판매	10월	0.721M	0.759M
11월28일	18:00	유로존	가계대출	10월		0.8%
11월28일	23: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9월		0.6%
11월28일	23:00	미국	케이스실러 20 주택가격 MM SA	9월	0.8%	1.0%
11월29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1월	101.0	102.6
11월29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11월		-0.33
11월29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1월	93.8	93.3
11월29일	19: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1월	-16.9	-16.9
11월29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24일주간		175.6
11월29일	22:30	미국	GDP 수정치	3분기	5.0%	4.9%
11월30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0월	5.9%	5.8%
11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11월		49.5
11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11월		50.6
11월30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1월		35.7
11월30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1월	2.8%	2.9%
11월30일	22:30	미국	개인소득 MM	10월	0.2%	0.3%
11월30일	22:30	미국	소비 MM	10월	0.2%	0.7%
11월30일	22: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10월	0.2%	0.3%
11월30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20일주간	218k	209k
11월30일	23:45	미국	시카고 PMI	11월	45.0	44.0
12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1월		1,238.0B
12월1일	00: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10월	-1.5%	1.1%
12월1일	08:30	일본	실업률	10월	2.6%	2.6%
12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11월		
12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1월		49.5
12월1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1월	43.8	43.8
12월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1월		
12월2-9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11월		3.100M
12월2일	00:00	미국	ISM 제조업 PMI	11월	47.6	46.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28일 (화)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증서부 농업 컨퍼런스 환영사 (29일 오전 0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기업연구소 행사서 연설 (29일 오전 0시5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유타은행인협회 행사서 연설 (29일 오전 0시4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2023년 EFRAG 컨퍼런스 사전녹화 연설 (29일 오전 1시)

11월29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오전 10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로올라대학교 시카고퀀란경영대학 주최 2023년 정책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30일 오전 3시45분)

11월30일 (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은행 감독 컨퍼런스서 연설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브레튼우즈커미티 주최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오후 11시5분)

12월1일 (금)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ECB 은행 감독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5시)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제 37회 연례 경제전망 심포지엄 Q&A 세션 참석 (2일 오전 0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스펠만컬리지 대담 참석 (2일 오전 1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스펠만컬리지 지역 경영인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참석 (2일 오전 4시)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달러 12월 약세 가능성

달러지수는 올 들어 현재까지 2.7% 하락했고 통상 1년 중 가장 취약한 12월을 앞두고 있다. 내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채US10YT=RR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식시장.SPX은 상승하면서 달러는 이미 약세 분위기다.

계절적으로 12월은 달러가 가장 취약한 달이다. 1973년 이후 달러는 12월에 평균 0.9% 하락했다. 하지만 1월에는 평균 0.98% 상승하며 손실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를 보면, 3개월 연속 하락세는 드물다. 과거 달러가 11월과 12월에 하락한 적은 16번 있었지만 11월, 12월, 이듬해 1월까지 하락한 적은 4번뿐이었다.

⊙ 중국 PMI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자문단은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4.5~5.5%로 권고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장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책은 대체로 미흡한 수준이어서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중국의 11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는데, 전달에는 예상치 못한 수축세를 보인 바 있다.

⊙ 美 PCE 물가지수

시장은 비교적 완만한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캠페인 종료를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오는 30일에 발표되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9월에는 각각 0.4%와 3.4%였다.

투자자들이 경제가 얼마나 냉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운데, 오는 28일 발표될 11월 소비자신뢰지수를 비롯한 다른 주요 경제지표도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오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열리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방법과 결정적으로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보인다.

COP 의장이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사장인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가 제시한 주요 목표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높이고, 기후 금융을 강화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오는 30일 발표될 유로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확인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며 베팅에 나서면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은 반발할 수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둔화됐다는 좋은 소식 이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오히려 앞으로 수개월 동안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은행 대출과 가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유로존 채권 금리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장의 낙관론과 중앙은행의 신중론 사이의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대격변기 맞은 외환시장, 여러 질문을 마주하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1월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내년 예고된 큰 변화를 앞둔 국내 외환시장은 분주하면서도 어수선하다.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국내 외국환은행과 관련 기관들은 쟁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가 툭툭 불거지는 데다 아직 세부 정책 내용이 불확실하고 명확한 당국 입장이나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어 제도 시행을 위한 밑그림은 아직 미완이다. 그렇다 보니 시행 시기가 당장 내년인 점을 감안할 때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는 볼멘소리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이에 대해 당국은 최근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년 초 시범운용 기간을 적극 활용해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구조 개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원론적인 질문

시장참여자 확대와 전자거래 시스템 마련 등 국내 외환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변화는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지만 당국과 시장의 엇박자 행보 속에서 언젠가 풀어야 하는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방에 매번 반대표를 던진 외환당국이 돌연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자, 각 은행들은 부랴부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

전면 개방이 아닌 이런저런 허들을 세운 다소 변형된 형태일지라도 외환시장의 변화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고 그만큼 살펴야 할 세부 이슈들이 많은 터라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대로, 국내 외은지점은 외은지점 나름대로 무거운 과제 앞에서 고민이 깊다.

일부 시중은행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이긴 하지만, 헤지나 알고리즘 거래 등 외환거래 기법 측면에서 수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해외은행과 견줄 수 없을뿐더러 순환근무라는 경직된 인력운용 체제 속 전문적인 외환인력 확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새벽 2시까지 인력을 무리하게 운용해야 하는 데 따른 압박도 적지 않다.

당초 외환당국이 제도 방향을 발표할 때를 잠시 떠올려보자. 국내 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점진적인 진행을 강조하고 원화 거래 중심은 국내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의식한 듯 애초부터 빠듯한 일정을 못박았고, 외환거래가 부수 사업으로 분류되며 인력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중은행들은 속도전에 매우 취약한 모습이다. 새로운 변화를 꺼리는 기득권의 게으름이라고 하기엔 애초부터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있다. 당국이 정한 점진적인 진행이 시장과 큰 괴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외환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내기관의 모습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

외은지점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국내에 적을 두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국내 외은 지점은 딱히 수혜 대상이 아니다. 수익성 측면뿐더러 유불리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들 본점이 RFI로 참여할 때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저야할 부담만 커졌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국내 외은지점의 중개 역할은 더 낮아진다. 시스템에 기반을 둔 RFI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국내 외은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당국의 뾰족한 유인책은 없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해 서둘러야 할까?

폐쇄적인 외환시장의 개방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당국 행보를 수궁하면서도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시쳇말로 '현타'를 맞고 있는 셈이다.

▲ 현실적인 질문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과 시행일이 확정돼 직진하는 현시점에서 핵심은 해외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준비와 대응하는지 여부다.

당국과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당장 참여할 수 있는 RFI가 있다고 보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와 관련 절차로 인해 기관들이 필요한 준비시간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RFI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한 업무용원화계좌 개설과 개별 지역마다 상대거래기관에 대한 확인절차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전자거래를 위한 API 연결을 비롯한 IT 구축과 결제, 각종 보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RFI대행기관 역할과 보고·확인업무에 대한 정의와 면책기준, 그리고 NDF 포지션 보고 여부 등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하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리스크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따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이용해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며 하반기 정식 시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의 큰 밑그림은 그려두고 남은 기간 시장과 많은 소통과 조율을 거치며 빠르게 정밀 묘사를 끝내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인 듯하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에 대한 부담을 낮추며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지만, 실제 참여하게 될 기관 또는 이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이 향후 흥행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의 정식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당국과 이를 허겁지겁 뒤쫓아가는 기관들 사이 현재 꽤 벌어져있는 간극이 시범운영 기간에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FACTBOX) - 내년 세계 경제 둔화 예상되나 침체는 피할 듯

11월23일 (로이터) -

세계 주요 은행들은 2024년 높은 금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및 중국 경제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로이터 조사에서 세계 경제는 올해 2.9% 성장하고, 내년 성장률은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럽과 영국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을 신호했다.

미국은 여전히 연착륙이 예상되나 연방준비제도 긴축 경로의 불확실성이 전망을 어렵게 한다. 중국의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세계 주요 은행들의 2024년 경제 전망치다.

Real GDP growth forecasts for 2024						
	GLOBAL	U.S.	CHINA	EURO AREA	UK	INDIA
Goldman Sachs	2.60%	2.10%	4.80%	0.90%	0.6%	6.3%
Morgan Stanley	2.80%	1.90%	4.20%	0.50%	-0.1%	6.4%
UBS	2.60%	1.10%	4.40%	0.60%	0.6%	6.2%
Barclays	2.60%	1.20%	4.40%	0.30%	0.1%	6.2%
J.P.Morgan	2.20%	1.60%	4.90%	0.40%	0.2%	5.7%
HSBC			4.90%			
BofA Global Research	2.8%	1.4%	4.8%	0.50%	0.1%	5.7%

	U.S. inflation (annual Y/Y for 2024)		Federal funds target rate (Dec'24)
	Headline CPI	Core PCE	
Goldman Sachs	2.40%	2.60%	5.13%
Morgan Stanley	2.10%	2.70%	4.375%
UBS	2.70%		2.75%
Barclays	2.50%	2.60%	4.75% ~ 5.00%
J.P.Morgan	2.70%		5.25% ~ 5.50%
HSBC	2.50%	2.50%	4.50%
BofA Global Research	2.80%		4.50% ~ 4.75%

※ 연방기금금리는 현재 5.25% ~ 5.50%

	S&P 500 target	US 10-year yield Target	EUR/USD	USD/JPY	USD/CNY
Goldman Sachs	4700	4.55%	1.10	150.00	7.15
Morgan Stanley	4500		1	140	7.5
UBS	4600	3.60%	1.15	130	7.15
Wells Fargo	4600-4800	4.75% - 5.25%	1.08-1.12	136-140	
Barclays		4.25%	1.09	145	7.20
J.P.Morgan		3.75%	1.13	146	7.15
BofA Global Research	5000	4.25%	1.15	142	6.90
Deutsche Bank			1.10	135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국영은행들 위안 매수... 위안 랠리 가속화 - 소식통

상하이, 11월22일 (로이터) -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 위안을 매수하며 달러 대비 위안의 회복을 가속화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식통 두 명이 21일 로이터에 밝혔다.

중국 통화당국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왔던 대형 국영은행들은 지난 한 해 위안 절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달러를 종종 매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미 위안이 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위안 매수 활동을 지속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위안이 지난 한 주 2% 절상되며 달러/위안 환율은 7.13 부근으로 거의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식통은 국영은행들이 평소와 같이 스왑과 현물시장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역대 스왑시장에서 위안을 달러와 교환하고, 교환한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SAFE 국장에 주허신 중신그룹 회장 지명 예정 - 소식통

베이징/홍콩, 11월22일 (로이터) -

중국이 금융 전문가이자 국영 금융업체 중신그룹 회장인 주허신을 국가외환관리국(SAFE) 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정통한 소식통 4명이 밝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이같은 내용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아울러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로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인민은행, SAFE, 중신그룹 대변인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정부 자문들, 올해 수준의 내년 성장 목표 제안할 듯

베이징, 11월22일 (로이터) -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이 다음 달 열리는 공산당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5%로 제안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접촉한 자문위원 7명 중 5명은 올해 목표와 같은 5% 내외의 목표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한 명은 4.5%를, 다른 한 명은 5.0-5.5%를 지목했다.

자문위원들은 올해 성장이 작년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낮은 기저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약 5%의 성장 목표를 지지하는 정부 이코노미스트 위용당은 로이터에 "총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 지도부는 12월 회의에서 성장 목표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통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